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서사범대학교	기숙사비	25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광서자치구 계림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8.09.02. ~ 2019.01. 11	기타비용	기숙사 보증금 600 보험비 300 기숙사 고정 부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 △	학 과	△△학과
성 별	남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01 . 15 .

파견자 : △ △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들은 광서사범대 ‘문학원’ 소속으로 초급, 중급, 고급 수업중 본인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9월이 1학기의 시작이라 초급을 들는다면 완전 기초부터 시작하기에 저는 중급수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개강 후 1주일동안 여러 수업을 들어보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실력보다 높은 난이도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급반을 수강했는데 중합(문법위주), 듣기, 말하기, 독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각 과목별 지도교수가 달랐고, 과목 별 알맞은 수업지도로 수업이 진행했습니다. 중합수업(주 2회)은 전 과목 통틀어 제일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어서 수업 전에 예습을 해가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어 수업 전날 예습을 해야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과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습을 하면서 책에 있는 예제문제, 문법을 이용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가면 수업시간에 교수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 틀리게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듣기수업(주 1회)은 교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듣기수업을 진행했고, 어느 수업 날은 영상 시청 후 감상문 100~300자 정도를 작성해 제출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별도의 과제는 없었습니다. 말하기수업(주 2회)은 수업 때 2인1조로 조를 구성해 개인적으로 본문을 읽는 시간을 주고,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읽게 시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해줘서 고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과제는 매 수업마다 본문에 관련된 주제에 맞는 간단한 회화를 작성해 오는 것이었는데, 주어진 문법, 구문 등등을 사용하여 어렵지 않게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회화에는 답이 없으니 자유롭게 만들어 보라하시는데 형식에 얽히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독해수업(주 1회)은 교재에 있는 본문을 바탕으로 시간 내에 읽고 문제를 풀고, 다 같이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매 주 과제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따로 문제를 만들어 온라인과제(20여문제)를 풀어 제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험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방대한 양을 시험을 치기에 부담이 될 듯했으나,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은 모든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학원’ 건물에서 진행되는데 한 학기 내내 한 교실에서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은 있지만, 책걸상이 많이 불편합니다.(계속해서 권의를 넣고 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광서사범대학교는 중국 남부 광서성 계림시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 비행기 직항으로 약 3시간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캠퍼스는 위치가, 연산, 왕청 3개가 있는데 우리 교환학생들은 위치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안 되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기후는 동남아처럼 온난습합니다. 9월에 막 도착했을 때는 하염없이 덥지만, 11월이 지나 비가 오기시작하면 기온은 10도를 넘어있지만, 쌀쌀함을 넘어 춥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처럼 온돌같은 난방이 없기에 비교적 높은 기온이라도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두꺼운 외투를 가져가지 않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저렴한 외투를 구매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오기 때문에 우산을 항상 챙겨 다녀야했습니다. 계림시는 산과 물로 유명한 도시이기에 중국하면 떠오르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걱정되는 학생이라면 광서사범대학교를 추천합니다.

계림시는 다른 중국지역과 특별히 비교되는 것이 디엔둥차(전기 오토바이)가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타기는 하지만, 계림시에는 특별히 도로에도 디엔둥차를 위한 도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엔둥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서는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

해 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림시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버스는 학교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어 배차간격이 좀 길긴 하지만 시내, 주변 관광지나 마트, 백화점까지 가기에 충분합니다. 버스비는 2원(약 360원)정도이며 택시비도 기본요금9원 (약 1500원)정도여서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하면 공용자전거가 유명한데, 학교 남문을 나가면 공용자전거구역이 있어 썬부바오(알리페이)를 통해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하면 쉽게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계림시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발전이 덜 된 도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중국에서는 SNS, 구글 등 규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우회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파견 후기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으로서 중국어를 선택해 공부하다가 단기어학연수도 다녀오고, SA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환학생까지 신청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쪽이나, 유명한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였지만, 계림을 선택했던 큰 이유는 계림의 아름다운 산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자연풍경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계림산수갑천하’ 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계림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다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중국하면 미세먼지가 많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확실히 북부지역에 비해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도 맑아 좋은 자연환경에서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외에 밥을 먹을 때도, 길을 물을 때에도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처음엔 말이 트이지 않아 어려웠지만, 갈수록 중국어가 조금씩 늘어 가는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도 자주 대화하며 배운 중국어를 최대한 끌어내 사용했습니다. 중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진전이 보일 때쯤 아쉽게도 한 학기가 지나 귀국하게 되어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보다 편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 결제시스템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가 있는데 중국카드를 만들어 등록한 후 필요할 때마다 계좌에서 돈을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고유의 QR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스캔한 후 금액을 입력, 비밀번호만 누르면 5초도 안돼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소속인 학생들은 교내 행사로 예산 캠퍼스에 가서 각 나라의 고유 전통의상을 입고 입장하는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줬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친구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아하는 분위기를 보니 다행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학기 중 생각보다 휴일이 많아 저는 계림 관광지, 광저우, 샤먼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4박5일간의 혼자 떠난 샤먼여행입니다. 샤먼은 치안이 좋아 혼자여행하기에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관광지여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 중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여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중국여행사를 통해 일일투어로 ‘토루’ 관광지에 가게 됐는데, 수십명의 관광객 중 다 중국인이었고 저 혼자만 외국인관광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고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하니 어디를 가든 저부터 챙겨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며 돌봐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여행 내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 생활과 여행을 통해 중국에 관한 나쁜 선입견은 사라졌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계림에서의 생활, 아름다운 자연풍경, 음식, 좋은 사람들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선발해준 순천향대학교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2500	내부구조	2인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특별한 규정 사항 없음		
주요사항	각 방별로 전기충전해서 사용 온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수카드를 충전해서 사용 학기를 마치고 수도세를 냄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유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따로 출입증은 없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기숙사 식당이 있는데 포장도 되고 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기숙사 1층에는 프론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각종 카드충전 및 불편사항 접수 등 기숙사 관련 일들을 처리해 줍니다.



기숙사 내부는 '口' 모양으로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빨래를 널어 놓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각 층마다 다용도실이 있어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따로 분리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문입니다. 솔직히 많이 낙후 돼 있습니다. 문을 지물쇠로 잠구고 열쇠를 들고 다닙니다. 보안에 유의해야하지만 한 번도 도난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게 전기충전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전기가 얼마 남아 있는지 볼 수 있고, 다 닳았다 싶으면 카드를 충전해서 꽂으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기숙사는 2명이 살기에 넓고 쾌적합니다.

기본적으로 침대2개, 책상 3개, 수납장 2개, TV, 에어컨 등이 구비 돼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더워서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들고 겨울에 추울 때 히터를 틀어도 되지만 전기만 많이 잡아먹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잡기 힘들어 안 트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에 전기장판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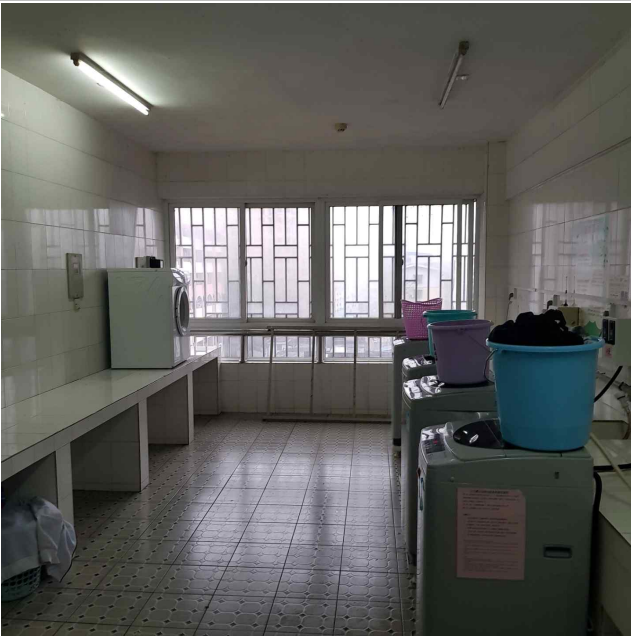
현재 신설 기숙사를 중축중인데 거의 다 완공이 되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출입하기 위해서 카드가 있어야하지만 교환학생인 저는 학생증을 들고 가 보안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 이용했습니다. 내부는 우리나라 열람실과 같은 분위기이며, 따로 지정석이 아닌 빈자리에 가서 앉아서 시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실은 기숙사 4층과 9층에 구비 돼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할 때 4위안이 드는데, 동전은 1층 기숙사 프론트에서 교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날씨가 안좋아 빨래가 안마르면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1위안에 10분씩 돌아갑니다.